

석사학위논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최창환


2005년 8월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허철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최창환

최창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초록>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최 창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도 소재 4개 남녀 고등학교 학생과 4개의 중학교 학생들과 제주도내 7개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72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 검사도구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 제작하여 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와 중앙교육 평가위원회의 정서적 특성 측정도구편람(1987)중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기존문항을 박경수(199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등 8개 하위영역을 측정하며 각 영역당 8개 문항씩 모두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성은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등 6개 하위영역을 측정하며 각 영역당 5개문항 씩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 way ANOVA (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자아정체감 0.73, 사회성 0.70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에서는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목표지향성과 자기주장,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성별비교에서는 기독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정성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과 자기존재의식이 높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독특성이 높다.

둘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 비교에서는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협동성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경우 기독교 학생보다 사교성, 봉사성, 그리고 계획성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며,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책임성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책임성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협동성이 높다.

셋째, 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은 사교성, 협동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서는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기독교 종교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사회성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6
2. 사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9
3.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과의 관계	12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5
1. 연구대상	15
2. 측정도구	15
3. 자료처리	18
IV. 연구결과 및 해석	19
1. 기독교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19
2.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	24
3.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과의 관계	29
V. 요약, 결론 및 제언	35
1. 요약	35
2. 결론	38
3. 제언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5
부 록	48

표 목 차

<표Ⅲ-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Ⅲ- 2>	자아정체감의 검사지 구성 및 신뢰도	16
<표Ⅲ- 3>	사회성 검사지 구성 및 신뢰도	17
<표Ⅳ- 1>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비교	19
<표Ⅳ- 2>	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20
<표Ⅳ- 3>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21
<표Ⅳ- 4>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22
<표Ⅳ- 5>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23
<표Ⅳ- 6>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 전체비교	24
<표Ⅳ- 7>	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25
<표Ⅳ- 8>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26
<표Ⅳ- 9>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27
<표Ⅳ-10>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28
<표Ⅳ-11>	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29
<표Ⅳ-12>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3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주기(development cycle)에 따라 성장하며, 삶의 여정의 각 단계에서는 새로운 과제나 좌절, 상처와 같은 등등의 고통스런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개인의 발달은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성장 또는 퇴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아정체감 형성기인 청소년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Muss(1981)는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임옥진, 2001, 재인용). 심리학적으로 청소년은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하는 단계상태를 의미한다(송종두, 1981). 그래서 이 시기를 의존된 아동기에서부터 자립적인 성인기로 전환하는 전환기로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권두승, 조아미, 1998).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지식중심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을 반성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중매체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며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은 단순한 개성상실만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실패에 대한 불안과 학업성취 결과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김문조, 1994).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성공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

한 존재로 열등시하게 된다.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므로 타인을 불신하고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성공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 자신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지녀 현실에 대해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된다. 또한 타인과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서 원만한 사회 적응을 가능케 하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그 사람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 적응이나 발달을 위한 교육의 주요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특징적 발달양상을 근거로 청소년기를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다. 신체적 발달측면에서는 신체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제 2의 성장 급등기, 성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춘기라 불린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이유키,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므로 Hall(1904)은 ‘질풍과 노도의 시기’(Storm and Drang)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김혜경, 2004, 재인용).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잦은 갈등을 일으키는 제 2의 반항기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형식과 방법을 익히면서 자신을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하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문용린(1992)은 청소년기를 인간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 이 시기를 사회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성을 설명하면서 타인에 대한 의식이 나의 머리 속에 존재하여 나의 행동이 타인을 전제로 고려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경우를 “사회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성의 범주를 크게 도덕성, 정치적 태도, 법의식, 종교성 등으로 파악하였다. 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인 친사회성(pro-social behavior)이 80년 말부터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개념은 심리학에서 주로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용된다. Bar-tal(1976)은 이것을 “사

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Eisenberg(1982)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서 도와주기, 협동, 교환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봉연(1985)도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도와주기, 나눠주기, 위로하기, 회사하기, 구조하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통한 종교활동은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박원기(2001)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은 비기독교 학생보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다고 하였고, 김상원(2000)은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영대(1998)의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연구에서 신앙의 성숙이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영환(1996)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하였다. Crabb(1976)은 성경적인 사고와 그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이타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였으며(유선애, 2000, 재인용), 김연진(1993)은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정도에 따라 이타성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신앙정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성중(1996)은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실현성의 관계연구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교회 밖에서 자아실현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및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종교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그리스도의 정체의를 가진 기독교청소년들과 비기독교청소년들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청소년과 타 종교활동 및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비기독교 청소년간에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총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사회성 총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사회성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사회성에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은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유의한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3-1 :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 하위요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3-2 : 비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 하위요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관하였다.

1. 자아정체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자아정체감의 개념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이란 자아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Erikson(1968)이 제시한 개념으로 정신분석적 입장에 기초한 ‘자아’의 개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이나 현상학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이다.

Erikson(1968)의 정체감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에서 구분된다. 주관적 측면은 개인적 정체감으로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자각을 뜻하고 객관적 측면은 심리사회적으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일치성을 뜻한다. 그는 “자아정체감이란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김영대, 1998, 재인용).

Rasmussen(1964)은 자아정체감의 하위구성요인을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근면성, 자아정체감 및 친밀성으로 규정하였다(김형태, 1989, 재인용).

Bronson(1959)은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의 특징은 역사적 자아의 안정된 감각,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자기의 지배적 특성에 대한 확신 및 자아감각의 안정성으로 규정했다(임옥진, 2001, 재인용).

Marcia(1980)는 Erikson의 정체감 위기개념을 새로운 차원에 근거한 조작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는 자기 정체감을 자기구조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정적

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라고 보았다(김형태, 1989, 재인용).

김형태(1989)의 개념정의를 보면 정체감이란 “자기라는 것, 자기의 존재증명, 진정한 자기, 주체성”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정체감이 “이론상으로는 첫째, 자기의 단일성, 연속성, 불변성, 독자성의 감각을 의미하고, 둘째, 일정한 대상간에 또는 일정한 집단 및 구성원간에 공인된 역할의 달성, 공통된 가치관의 공유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연대감, 안정감에 토대를 둔 자존감 및 잠정적인 자기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형태, 1998, 재인용).

Margaret(1985)은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인식은 나를 보는 타인의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이선영, 2001, 재인용).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것이며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 창조적 이미지들의 복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을 자기의 감각, 독자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김형태, 1989, 재인용).

서봉연(1975)은 그의 연구에서 Dignan이 제시한 자아정체감 구성요인에 자기 주장이라는 요인 하나만을 추가시킨 채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희순(1998)은 자아정체감을 개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체성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연령과 성별, 문화, 사회적 요인, 동일시 대상, 불안요인, 자기존중감 요인, 학업성취요인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들면서 크게 확립된다(강봉규, 1994).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자아정체감은 성장과정의 결과로 생긴 자신감으로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묘사해주며 자기를 증명하는 창조적

이미지의 복합체이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2)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소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Rasmussen(1964)이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을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근면성, 자아정체감 및 친밀성으로 규정한 것과, Rosenberg(1965)의 자아정체감을 10개의 문항으로 긍정적 문항(1,3,4,7,10)과 부정적 문항(2,5,6,8,9)으로 구성한 것을 배제현(1984)이 번안한 것이 있다. 또 Dignan(1965)는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을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등 7개로 규정한 것을 서봉연이 자기주장을 추가하여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것이 있다.

본 연구의 자아정체감 조사에서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한 여덟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며 각각의 하위영역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안정성은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된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둘째, 목표지향성이란 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목표달성에 대한 자기 주장)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한다. 셋째, 독특성이란 현재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을 말한다. 넷째, 대인역할기대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상이한 여러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다소 일시적이고 특징적인 여러 가지 자아상을 의미한다. 적합한 성적 아이덴티티, 적합한 사회적 역할, 만족스런 직업역할 성취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대한 반응성을 말한다. 다섯째,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아

상을 말한다. 여섯째, 자기주장이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의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말한다. 일곱째, 자기존재의식이란 자기존재와 자신의 심리, 신체적 특성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말한다. 여덟째, 대인관계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

2. 사회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성의 개념

인간의 행동양식은 대부분 사회를 통해 습득되고 그 양식은 그 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통성을 갖게 된다. 사회성이란 이 공통된 일반적 방향에 나타나는 사회적 적응의 총칭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습관군 혹은 태도의 총칭이다(박연숙, 1989). 즉 사회적 측면에서 본 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어떤 사람이 남을 모방하고 동화하며 사회의 요구나 제도 그리고 관습들에 동화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활히 가지며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성질을 사회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은 초기엔 심리측정에서 인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측정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하나의 성향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회성의 영역을 사회화와 사회적 적응과 같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회적 집단의 평가에 의해 사회성정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성을 하나의 성향으로 규정하면 당연히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속에서 몇 가지 하위영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성향으로서의 사회성을 이은희(1978)는 기독교 아동과 비기독교 아동을 비교하면서 사회성을 7가지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즉 독립성,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체로 타인과 생활할 수 있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요소들이다(박경수, 1993, 재인용).

문용린(1992)은 청소년기를 인간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고 이 시기를 사회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성을 설명하면서 타인에 대한 의식의 나의 머리 속에 존재하여 나의 행동이 타인을 전제로 고려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경우를 ‘사회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성의 범주를 크게 도덕성, 정치적 태도, 법의식, 종교성 등으로 파악한다.

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인 친사회성이 80년대말 부터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개념은 주로 심리학에서 주로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용된다.

Bar-tal(1976)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으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유선애, 2000, 재인용). Eisenberg(1982)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서 도와주기, 협동, 교환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주기는 의무감, 부채감, 타인의 기대에 부응, 외적 보상기대, 순수한 이타심과 같은 여러 동기에 의해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서봉연(1985)도 친사회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도와주기, 나눠주기, 위로하기, 회사하기, 구조하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이나 친사회성은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심리적인 면의 사회성에 대한 접근과 달리 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성을 접근한 학자는 Mead이다. Mead(1934)는 Cooley의 자아발달 이론을 이어받아 한 개인이 사회적인 자아로 성장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Mead에 따르면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은 ‘특정한 타자들’의 기대를 내면화하지만 성장하면서 ‘일반화된 타자들’의 기대를 내면화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일반화된 타자들이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사

회가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낸다(양춘외, 1986, 재인용).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사회성이란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에로의 전환과정, 즉 타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 및 위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사회성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성에 관련된 다양한 특징을 포함시키면서 좀더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독립성을 묶은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중심으로 사회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박경수(1993)가 중앙교육평가위원회의 정의적 특성의 측정도구 편람(1987) 중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기존의 문항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성의 개념의 용어를 정리하면 사회성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타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성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첫째, 사교성은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적응하려는 성향, 둘째, 협동성은 사회관계 속에서 함께 일을 처리하려는 성향, 셋째, 봉사성은 조건 없이 남을 도우려는 성향, 넷째, 자제성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하고 다섯째, 계획성은 사회적인 조건에서 일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려는 경향, 여섯째, 책임성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려는 성향을 말한다.

3.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과의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특정한 자아의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자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생애를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며 집단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 등을 전수, 수용, 반영하는 과정이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개인은 가치와 규범과 역할기대를 배우며 이를 정신적으로 소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사회 문화적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변세권, 2001).

사회화의 과정에는 1차적 사회화와 2차적 사회화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1차적 사회화는 어린 시절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내면화를 통해 자신, 타인, 세계 등에 관해 배우면서 사회구성원이 되어지는 과정이며 2차적 사회화는 1차적 사회화를 경험한 개인들이 자신의 역할수행을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어휘를 습득하며 관념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먼저 1차적 사회화의 경우 아동의 사회화를 책임지며 중재하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는 대부분 부모이기에 각 부모가 지닌 독특한 가치관이나 계층적 안목에서 본 세계관은 걸러짐이 없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보인다. 이 경우 감정이 지배적이며 중요한 타자와 아동자신을 동일시하는 주관적 입장에서 자아정체감을 의식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2차적 사회화는 개관적 현실을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시각에서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취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관념을 접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감정적 동일시보다 제도적 배경이나 합리적 근거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 내면화과정을 통하여 사회화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2차적 사회화를 과거 내면화된 자아의식과 세계관을 재조명하는 과정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2차적 사회화로의 전환기에 선 청소년들은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사

회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비례해서 횡적인 친구에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청소년은 교우관계를 통하여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대등한 대인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곳에 대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회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획득하게 되며 사회적응을 학습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그 관계가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격은 잘 적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만한 적응상태일 때 자아정체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Rogers(1951)는 인간의 행동은 자아정체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 적응이 이루어지며 자아정체감 확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Allport(1961)도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내적성향이라고 보고 성숙인이 되기 위하여는 자아정체감을 확대하고 개인과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수용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Skinner(1958)역시 자기 수용이 타인을 수용하는데 관련이 깊다고 하여 청년기의 행동형태의 궁극적 목표는 성숙된 성격으로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정훈(1999)은 적응을 잘하는 인간의 지각의 장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며 자신이 지각한 경험을 현상적 자아 속에 수용하고 통합하는 일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광범위한 동일시 작용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Glanz와 Walston(1958)등도 자아정체감이란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성격의 핵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 태도, 역할, 위치 등이 자아정체감과 더불어 적응상태를 유발한다고 보았다(정인숙, 1980, 재인용).

이러한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개인의 행동방향 및 사회적 적응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아가 긍정적이고 안정된 개인은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개인보다 훨씬 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자아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을 거부하고 타인을 거부하여 대인관계를 꺼리며 자아축소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갈등과 긴장의 연속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홍순혜(1984)는 노인들의 종교활동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이원규(1989)는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에서 더 삶의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이종문(1995)의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성중(1996)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교회 밖에서 자아실현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신인호(1998)는 인생관에서 곤란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기독교 학생은 비기독교 학생보다 더 참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선애, 2000).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 자아실현,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연구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적응도 뛰어나며 원만한 대인관계 및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비교 연구할 목적으로 제주도 내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및 7개 교회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720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성별, 학교급별, 종교별 등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급별	중	360	50.0
	고	360	50.0
성 별	남	360	50.0
	여	360	50.0
종 교 별	기 독 교	360	50.0
	비기독교	360	50.0
계		720	100.0

총 720명 중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50.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50.0%를 차지하였다. 종교별로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50%씩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검사지 및 사회성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 후 몇 개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면서 연구자

가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1) 자아정체감 검사

본 연구는 대상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번안 제작하여 서봉연(1975)이 사용한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용하였다. 자아정체감 검사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등의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당 8개 문항씩으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항상 그렇다(4)로 4점척도로 측정하되 64개 문항가운데 35개 문항은 역산처리한다. 역산처리 문항은 2, 4, 6, 7, 8, 9, 10, 12, 14, 16, 18, 20, 21, 22, 24, 26, 28, 30, 34, 36, 38, 40, 42, 44, 45, 46, 48, 49, 50, 52, 56, 58, 60, 62, 64 문항이다. 자아정체감 점수는 응답한 점수의 합이며 각각의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가 0.70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기정체감 척도의 8개 하위영역의 내용과 그에 속하는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기정체감 검사지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번 호	문 항 수	Cronbach's α
안 정 성	1, 16, 23, 30, 44, 51, 57 58	8	0.54
목표지향성	2, 9, 24, 31, 38, 45, 52, 59	8	0.72
독 특 성	3, 10, 17, 32, 39, 46, 53, 60	8	0.53
대인역할기대	4, 11, 18, 25, 40, 47, 54, 61	8	0.51
자 기 수 용	5, 12, 19, 26, 33, 48, 55, 62	8	0.60
자 기 주 장	6, 13, 20, 27, 34, 41, 56, 63	8	0.51
자기존재의식	7, 14, 21, 28, 35, 42, 49, 64	8	0.64
대 인 관 계	8, 15, 22, 29, 36, 37, 43, 50	8	0.63
자아정체감전체		64	0.73

2) 사회성 검사

본 연구는 대상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교육 평가 위원회의 정의적 특성의 측정도구편람(1987)중에 박경수(1993)가 기존문항을 수정 보완한 사회성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사회성 검사는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6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당 5개 문항씩으로 총 30문항 구성되어 있다. 검사반응은 아주 그렇다(4), 그렇다(3), 그렇지 않다(2), 정말 그렇지 않다(1)의 4점 척도로 측정하되 7개 문항은 역산처리 한다. 역산처리 문항은 2, 5, 7, 12, 16, 23, 29 문항이다. 사회성의 각각의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사회성은 높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0.70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회성 척도의 6개 하위영역의 내용과 그에 속하는 해당문항번호,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II-3> 사회성 검사지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 교 성	1, 5, 7, 9, 12	5	0.53
협 동 성	2, 10, 17, 26, 28	5	0.56
봉 사 성	3, 13, 18, 19, 27	5	0.61
자 제 성	6, 11, 16, 23, 29	5	0.50
계 획 성	8, 14, 20, 21, 25	5	0.52
책 임 성	4, 15, 22, 24, 30	5	0.64
사회성전체		30	0.70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시내 4개 고등학교와 4개 중학교 그리고 7개 교회의 학생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연구문제별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또한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을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 가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1)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비교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전체비교

하위영역	기독교 학생 (n=360)		비기독교 학생 (n=360)		전 체 (n=720)		t
	M	SD	M	SD	M	SD	
안정성	2.33	0.32	2.37	0.35	2.35	0.34	-1.61
목표지향성	2.66	0.51	2.54	0.51	2.60	0.52	3.24**
독특성	2.54	0.31	2.52	0.33	2.53	0.32	0.67
대인역할기대	2.68	0.34	2.66	0.32	2.67	0.33	1.04
자기수용	2.50	0.44	2.43	0.44	2.47	0.44	1.89
자기주장	2.48	0.37	2.42	0.37	2.45	0.37	2.44*
자기존재의식	2.71	0.46	2.71	0.40	2.71	0.43	0.11
대인관계	2.65	0.39	2.63	0.39	2.64	0.39	0.48
자아정체감전체	2.57	0.20	2.53	0.19	2.55	0.20	2.32*

* p<.05 ** p<.01

안정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지향성은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24, p<.01). 독특성과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은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기주장은 기독교 학생

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4, p<.05$). 자기존재의식은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인관계는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2, p<.05$).

이상에서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목표지향성과 자기주장,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기독교 학생을 성별로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표IV-2>와 같다.

<표 IV-2> 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하위영역	남 (n=180)		여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안 정 성	2.29	0.31	2.36	0.32	2.33	0.32	-2.27*
목표지향성	2.61	0.54	2.71	0.48	2.66	0.51	-1.75
독 특 성	2.53	0.29	2.55	0.32	2.54	0.31	-0.65
대인역할기대	2.68	0.34	2.69	0.34	2.68	0.34	-0.43
자 기 수 용	2.50	0.45	2.49	0.44	2.50	0.44	0.25
자 기 주 장	2.50	0.35	2.47	0.38	2.48	0.37	0.90
자기존재의식	2.71	0.55	2.72	0.47	2.71	0.46	-0.19
대 인 관 계	2.65	0.36	2.64	0.41	2.65	0.39	0.34
자아정체감전체	2.56	0.20	2.58	0.20	2.57	0.20	-0.92

* $p<.05$

안정성은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7, p<.05$). 목표지향성과 독특성은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대인역할기대와 자기수용은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주장은 기독교 남학생이 기독교 여학생

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존재의식과 대인관계는 기독교 남학생과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비기독교 학생을 성별로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자아정체감 비교

하위영역	남 (n=180)		여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안 정 성	2.37	0.33	2.36	0.37	2.37	0.35	0.13
목표지향성	2.52	0.49	2.55	0.54	2.54	0.51	-0.53
독 특 성	2.51	0.32	2.54	0.34	2.52	0.33	-0.68
대인역할기대	2.65	0.33	2.67	0.32	2.66	0.32	-0.57
자 기 수 용	2.48	0.39	2.39	0.48	2.43	0.44	1.89
자 기 주 장	2.45	0.33	2.38	0.40	2.42	0.37	1.91
자기존재의식	2.75	0.40	2.66	0.41	2.71	0.40	2.21*
대 인 관 계	2.65	0.38	2.61	0.39	2.63	0.39	1.12
자아정체감전체	2.55	0.17	2.52	0.21	2.53	0.19	1.47

* p<.05

안정성은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지향성과 독특성, 대인역할기대는 비기독교 여학생이 비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기수용과 자기주장은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존재의식은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1, p<.05). 대인관계는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자기존재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기독교 학생을 학교급별로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하위영역	중 (n=180)		고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안정성	2.33	0.33	2.32	0.30	2.33	0.32	0.27
목표지향성	2.71	0.48	2.61	0.54	2.66	0.51	1.78
독특성	2.53	0.31	2.55	0.30	2.54	0.31	-0.45
대인역할기대	2.68	0.33	2.69	0.35	2.68	0.34	-0.27
자기수용	2.55	0.42	2.45	0.46	2.50	0.44	2.16*
자기주장	2.51	0.36	2.46	0.37	2.48	0.37	1.26
자기존재의식	2.79	0.49	2.63	0.42	2.71	0.46	3.32**
대인관계	2.66	0.37	2.63	0.40	2.65	0.39	0.89
자아정체감전체	2.59	0.20	2.54	0.20	2.57	0.20	2.52*

* p<.05 ** p<.01

안정성은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지향성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독특성과 대인역할기대는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수용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6, p<.05). 자기주장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존재의식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2, p<.01).

대인관계는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2, p<.05$).

이상에서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과 자기존재의식,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비기독교 학생을 학교급별로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자아정체감 비교

하위영역	중 (n=180)		고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안정성	2.37	0.35	2.36	0.36	2.37	0.35	0.32
목표지향성	2.59	0.49	2.48	0.53	2.54	0.51	1.89
독특성	2.47	0.31	2.58	0.33	2.52	0.33	-3.02**
대인역할기대	2.66	0.33	2.66	0.32	2.66	0.32	0.08
자기수용	2.49	0.44	2.37	0.44	2.43	0.44	2.59*
자기주장	2.42	0.37	2.41	0.37	2.42	0.37	0.29
자기존재의식	2.77	0.42	2.64	0.38	2.71	0.40	3.15**
대인관계	2.64	0.42	2.62	0.36	2.63	0.39	0.61
자아정체감전체	2.55	0.20	2.52	0.18	2.53	0.19	1.91

* $p<.05$ ** $p<.01$

안정성은 비기독교 중학생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지향성은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독특성은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02, p<.01$). 대인역할기대는 비기독교 중학생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수용은 비기독교 중학생

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9$, $p<.05$). 자기주장은 비기독교 중학생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존재의식은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5$, $p<.01$). 대인관계는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비기독교 중학생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결과,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과 자기존재의식이 높았으며, 비기독교 고등학생은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독특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

1)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 전체비교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 전체비교

하위영역	기독교 학생 (n=360)		비기독교 학생 (n=360)		전 체 (n=720)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2.33	0.45	2.41	0.48	2.37	0.47	-2.30*
협 동 성	2.22	0.42	2.14	0.44	2.18	0.43	2.56*
봉 사 성	2.26	0.45	2.35	0.45	2.31	0.45	-2.47*
자 제 성	2.43	0.40	2.42	0.44	2.42	0.42	0.37
계 획 성	2.62	0.43	2.71	0.43	2.66	0.43	-2.95**
책 임 성	2.03	0.44	2.00	0.47	2.01	0.46	0.95
사회성전체	2.31	0.24	2.34	0.25	2.32	0.25	-1.21

* $p<.05$ ** $p<.01$

사교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0, p<.05$). 협동성은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6, p<.05$). 봉사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7, p<.05$). 자제성은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획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5, p<.01$). 책임성은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협동성이 높았으며, 비기독교 학생은 기독교 학생보다 사교성과 봉사성, 그리고 계획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기독교 학생을 성별로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하위영역	남 (n=180)		여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2.34	0.45	2.31	0.46	2.33	0.45	0.67
협 동 성	2.19	0.44	2.24	0.40	2.22	0.42	-1.22
봉 사 성	2.27	0.48	2.25	0.43	2.26	0.45	0.42
자 제 성	2.41	0.41	2.45	0.39	2.43	0.40	-0.95
계 획 성	2.61	0.46	2.62	0.40	2.62	0.43	-0.24
책 임 성	2.04	0.45	2.02	0.44	2.03	0.44	0.38
사회성전체	2.31	0.25	2.32	0.22	2.31	0.24	-0.23

사교성은 기독교 남학생이 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협동성은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봉사성은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제성은 기독교 여학생이 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획성과 책임성은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성은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남학생과 기독교 여학생은 사회성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비기독교 학생을 성별로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

하위영역	남 (n=180)		여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2.41	0.47	2.40	0.49	2.41	0.48	0.24
협 동 성	2.17	0.46	2.10	0.42	2.14	0.44	1.36
봉 사 성	2.33	0.47	2.37	0.44	2.35	0.45	-0.79
자 제 성	2.37	0.41	2.46	0.47	2.42	0.44	-1.84
계 획 성	2.71	0.42	2.71	0.45	2.71	0.43	0.07
책 임 성	2.06	0.45	1.93	0.48	2.00	0.47	2.54*
사회성전체	2.34	0.26	2.33	0.25	2.34	0.25	0.50

* p<.05

사교성은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협동성은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봉

사성과 자제성은 비기독교 여학생이 비기독교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계획성은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책임성은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4, p<.05$). 전체적으로 사회성은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비기독교 남학생과 비기독교 여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책임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기독교 학생을 학교급별로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하위영역	중 (n=180)		고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2.31	0.45	2.35	0.46	2.33	0.45	-0.81
협 동 성	2.22	0.40	2.21	0.44	2.22	0.42	0.20
봉 사 성	2.30	0.45	2.22	0.45	2.26	0.45	1.63
자 제 성	2.42	0.41	2.44	0.38	2.43	0.40	-0.58
계 획 성	2.59	0.44	2.64	0.42	2.62	0.43	-1.18
책 임 성	2.09	0.47	1.97	0.42	2.03	0.44	2.44*
사회성전체	2.32	0.24	2.31	0.23	2.31	0.24	0.55

* $p<.05$

사교성은 기독교 고등학생이 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협동성은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봉사성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제성과 계획성은 기독교 고등학생이 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책임성은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4, p<.05$). 전체적으로 사회성은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기독교 중학생과 기독교 고등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책임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비기독교 학생을 학교급별로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

하위영역	중 (n=180)		고 (n=180)		전 체 (n=360)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2.36	0.46	2.45	0.49	2.41	0.48	-1.83
협 동 성	2.07	0.45	2.20	0.42	2.14	0.44	-2.92**
봉 사 성	2.37	0.49	2.32	0.41	2.35	0.45	0.93
자 제 성	2.38	0.47	2.46	0.41	2.42	0.44	-1.74
계 획 성	2.74	0.42	2.68	0.44	2.71	0.43	1.15
책 임 성	2.03	0.48	1.97	0.45	2.00	0.47	1.22
사회성전체	2.32	0.26	2.35	0.24	2.34	0.25	-0.94

** $p<.01$

사교성은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협동성은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2, p<.01$). 봉사성은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제성은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획성과 책임성은 비기독교 중학생이 비기독교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성은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학교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비기독교 중학생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 비기독교 고등학생이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협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1) 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기독교 학생에 있어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하위영역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사회성
안정성	0.004 (0.944)	0.078 (0.139)	0.111* (0.035)	-0.025 (0.632)	0.093 (0.078)	0.149** (0.004)	0.126* (0.017)
목표지향성	-0.248** (0.000)	-0.045 (0.396)	-0.119* (0.023)	-0.282** (0.000)	-0.307** (0.000)	-0.271** (0.000)	-0.384** (0.000)
독특성	0.200** (0.000)	0.102 (0.053)	0.036 (0.500)	-0.014 (0.793)	0.013 (0.805)	-0.151** (0.004)	0.058 (0.275)
대인역할기대	-0.297** (0.000)	-0.173** (0.001)	-0.219** (0.000)	-0.284** (0.000)	-0.178** (0.001)	-0.282** (0.000)	-0.433** (0.000)
자기수용	-0.328** (0.000)	-0.129* (0.014)	-0.069 (0.192)	-0.293** (0.000)	-0.153** (0.004)	-0.156** (0.003)	-0.338** (0.000)
자기주장	-0.311** (0.000)	-0.061 (0.246)	0.026 (0.619)	-0.033 (0.535)	-0.153** (0.004)	-0.158** (0.003)	-0.212** (0.000)
자기존재의식	-0.296** (0.000)	-0.178** (0.001)	0.085 (0.106)	-0.146** (0.005)	-0.111* (0.036)	-0.052 (0.329)	-0.209** (0.000)
대인관계	-0.551** (0.000)	-0.363** (0.000)	-0.196** (0.000)	-0.087 (0.098)	0.044 (0.402)	-0.149** (0.004)	-0.399** (0.000)
자아정체감	-0.480** (0.000)	-0.204** (0.000)	-0.091 (0.086)	-0.308** (0.000)	-0.212** (0.000)	-0.274** (0.000)	-0.474** (0.000)

* p<.05 ** p<.01

안정성은 사교성과 협동성, 자제성, 계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봉사성($r=.111, p<.05$), 책임성($r=.149, p<.01$), 그리고 사회성($r=.126,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봉사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은 사교성($r=-.248, p<.01$), 봉사성($r=-.119, p<.05$), 자제성($r=-.282, p<.01$), 계획성($r=-.307, p<.01$), 책임성($r=-.271, p<.01$), 그리고 사회성($r=-.38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사교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성은 사교성($r=.200,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그리고 사회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책임성($r=-.151,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독특성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았으며, 책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역할기대는 사교성($r=-.297, p<.01$), 협동성($r=-.173, p<.01$), 봉사성($r=-.219, p<.01$), 자제성($r=-.284, p<.01$), 계획성($r=-.178, p<.01$), 책임성($r=-.282, p<.01$), 그리고 사회성($r=-.43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대인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사교성($r=-.328, p<.01$), 자제성($r=-.293, p<.01$), 계획성($r=-.153, p<.01$), 책임성($r=-.156, p<.01$), 그리고 사회성($r=-.33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교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은 사교성($r=-.311, p<.01$), 계획

성($r=-.153, p<.01$), 책임성($r=-.158, p<.01$), 그리고 사회성($r=-.21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사교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재의식은 사교성($r=-.296, p<.01$), 자제성($r=-.146, p<.01$), 계획성($r=-.111, p<.05$), 그리고 사회성($r=-.20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 책임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사교성, 자제성, 계획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사교성($r=-.551, p<.01$), 협동성($r=-.363, p<.01$), 봉사성($r=-.196, p<.01$), 책임성($r=-.149, p<.01$), 그리고 사회성($r=-.39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제성, 계획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사교성($r=-.480, p<.01$), 협동성($r=-.204, p<.01$), 자제성($r=-.308, p<.01$), 계획성($r=-.212, p<.01$), 책임성($r=-.274, p<.01$), 그리고 사회성($r=-.47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봉사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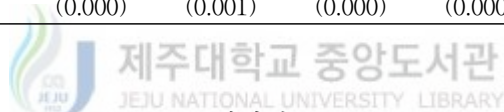
따라서, 기독교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교성, 협동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비기독교 학생에 있어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

하위영역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사회성
안정성	0.130* (0.014)	0.071 (0.179)	0.089 (0.093)	-0.070 (0.184)	0.071 (0.176)	0.117* (0.027)	0.124* (0.019)
목표지향성	-0.182** (0.001)	-0.074 (0.163)	-0.203** (0.000)	-0.361** (0.000)	-0.347** (0.000)	-0.211** (0.000)	-0.408** (0.000)
독특성	0.117* (0.026)	0.138** (0.009)	0.076 (0.151)	0.057 (0.278)	0.051 (0.337)	-0.139** (0.008)	0.088 (0.096)
대인역할기대	-0.210** (0.000)	-0.288** (0.000)	-0.175** (0.001)	-0.133* (0.012)	-0.277** (0.000)	-0.316** (0.000)	-0.416** (0.000)
자기수용	-0.234** (0.000)	-0.179** (0.001)	-0.081 (0.125)	-0.230** (0.000)	-0.053 (0.316)	-0.059 (0.265)	-0.250** (0.000)
자기주장	-0.295** (0.000)	-0.161** (0.002)	-0.116* (0.028)	-0.021 (0.695)	-0.108* (0.041)	-0.218** (0.000)	-0.278** (0.000)
자기존재의식	-0.199** (0.000)	-0.171** (0.001)	0.043 (0.420)	-0.179** (0.001)	-0.038 (0.469)	-0.007 (0.889)	-0.165** (0.002)
대인관계	-0.533** (0.000)	-0.296** (0.000)	-0.241** (0.000)	-0.049 (0.358)	-0.060 (0.256)	-0.148** (0.005)	-0.402** (0.000)
자아정체감	-0.380** (0.000)	-0.252** (0.000)	-0.171** (0.001)	-0.287** (0.000)	-0.217** (0.000)	-0.251** (0.000)	-0.466** (0.000)



* p<.05 ** p<.01

안정성은 사교성($r=.130$, $p<.05$), 책임성($r=.117$, $p<.05$), 그리고 사회성($r=.124$,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사교성과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은 사교성($r=-.182$, $p<.01$), 봉사성($r=-.203$, $p<.01$), 자제성($r=-.361$, $p<.01$), 계획성($r=-.347$, $p<.01$), 책임성($r=-.211$, $p<.01$), 그리고 사회성($r=-.40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사교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성은 사교성($r=.117$,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과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그리고 사회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책임성($r=-.139$,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독특성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았으며, 책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역할기대는 사교성($r=-.210, p<.01$)과 협동성($r=-.288, p<.01$), 봉사성($r=-.175, p<.01$), 자제성($r=-.133, p<.05$), 계획성($r=-.277, p<.01$), 책임성($r=-.316, p<.01$), 그리고 사회성($r=-.41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대인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사교성과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사교성($r=-.234, p<.01$), 자제성($r=-.230, p<.01$), 그리고 사회성($r=-.250,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 봉사성, 계획성, 책임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교성과 자제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은 사교성($r=-.295, p<.01$), 봉사성($r=-.116, p<.05$), 계획성($r=-.108, p<.05$), 책임성($r=-.218, p<.01$), 그리고 사회성($r=-.27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협동성과 자제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사교성과 봉사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재의식은 사교성($r=-.199, p<.01$), 협동성($r=-.171, p<.01$), 자제성($r=-.179, p<.01$), 그리고 사회성($r=-.165,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봉사성, 계획성, 책임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사교성과 협동성, 자제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사교성($r=-.533, p<.01$), 협동성($r=-.296, p<.01$), 봉사성($r=.211, p<.01$), 책임성($r=-.148, p<.01$), 그리고 사회성($r=-.40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제성, 계획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사교성과 협동성, 봉사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은 사교성($r=-.380, p<.01$)과 협동성($r=-.252, p<.01$), 봉사성($r=-.171, p<.01$), 자제성($r=-.287, p<.01$), 계획성($r=-.217, p<.01$), 책임성($r=-.251, p<.01$), 그리고 사회성($r=-.46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따라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교성과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 · 비 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혀 기독교 신앙교육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 형성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 · 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소재 4개 남녀 고등학교 학생과 4개의 중학교 학생들과 제주도내 7개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 72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 검사도구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 제작하여 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와 중앙교육평가위원회의 정서적 특성 측정도구편람(1987)중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기존문항을 박경수(199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등으로 하위변인을 측정하여 모두 6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8개 변인은 각 8개 문항씩이다.

사회성은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등으로 하위변인을 측정하며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6개 변인은 각 5개 문항씩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검증)와 One 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응답자들이 응답결과를 분석·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설 I-1에서 기독교 학생은 목표지향성($t=3.24, p<.01$)과 자기주장($t=2.44,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설 I-2에서 기독교 여학생은 기독교 남학생보다 안정성($t=-2.27, 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비기독교 남학생이 비기독교 여학생보다 자기존재의식 ($t=2.21, p<.05$)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가설 I-3에서 기독교 중학생이 기독교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t=2.16, p<.05$)과 자기존재의식($t=3.3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비기독교 고등학생은 비기독교 중학생보다 독특성($t=-3.02,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자기수용 ($t=2.59, p<.05$)과 자기존재의식($t=3.15,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둘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설 II-1에서 비기독교 학생은 사교성($t=-2.30, p<.05$)과 봉사성($t=-2.47,$

$p < .05$)과 계획성($t = -2.95$, $p < .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독교 학생은 협동성($t = 2.56$,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성은 비기독교 학생이 기독교 학생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가설 II-2에서 사회성 성별비교에서 기독교 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기독교 학생의 경우는 비기독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책임성($t = 2.54$, $p < .05$)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가설 II-3에서 기독교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책임성($t = 2.4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기독교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협동성($t = -2.92$, $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기독·비기독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설 III-1에서 기독교 학생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봉사성($r = .111$, $p < .05$), 책임성($r = .149$, $p < .01$), 그리고 사회성($r = .126$, $p < .05$)이 높았다.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사교성($r = -.248$, $p < .01$), 봉사성($r = -.119$, $p < .05$), 자제성($r = -.282$, $p < .01$), 계획성($r = -.307$, $p < .01$), 책임성($r = -.271$, $p < .01$), 그리고 사회성($r = -.384$, $p < .01$)은 낮았다. 독특성이 높을수록 사교성($r = .200$, $p < .01$)이 높았으며 책임성($r = -.151$, $p < .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사교성($r = -.297$, $p < .01$), 협동성($r = -.173$, $p < .01$), 봉사성($r = -.219$, $p < .01$), 자제성($r = -.284$, $p < .01$), 계획성($r = -.178$, $p < .01$), 책임성($r = -.282$, $p < .01$), 그리고 사회성($r = -.433$, $p < .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교성($r = -.328$, $p < .01$), 자제성($r = -.293$, $p < .01$), 계획성($r = -.153$, $p < .01$), 책임성($r = -.156$, $p < .01$), 그리고 사회성($r = -.338$, $p < .01$)이 낮았다.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사교성($r = -.311$, $p < .01$), 계획성($r = -.153$, $p < .01$), 책임성($r = -.158$, $p < .01$), 그리고 사회성($r = -.212$, $p < .01$)이 낮았다.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사교성($r = -.296$, $p < .01$), 자제성($r = -.146$, $p < .01$), 계획성($r = -.111$, $p < .05$), 그리고 사회성($r = -.209$, $p < .01$)이 낮았다.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사교성($r = -.551$, $p < .01$), 협

동성($r=-.363$, $p<.01$), 봉사성($r=-.196$, $p<.01$), 책임성($r=-.149$, $p<.01$), 그리고 사회성($r=-.399$, $p<.01$)이 낮았다.

가설 III-2에서 비기독교 학생들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사교성($r=.130$, $p<.05$), 책임성($r=.117$, $p<.05$), 그리고 사회성($r=.124$, $p<.05$)이 높았다. 목표지향성 높을수록 사교성($r=-.182$, $p<.01$), 봉사성($r=-.203$, $p<.01$), 자제성($r=-.361$, $p<.01$), 계획성($r=-.347$, $p<.01$), 책임성($r=-.211$, $p<.01$), 그리고 사회성($r=-.408$, $p<.01$)이 낮았다. 독특성이 높을수록 사교성($r=.117$, $p<.05$)이 높았으며 책임성($r=-.139$, $p<.01$)이 낮았다. 대인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사교성($r=-.234$, $p<.01$), 협동성($r=-.288$, $p<.01$), 봉사성($r=-.175$, $p<.01$), 자제성($r=-.133$, $p<.05$), 계획성($r=-.277$, $p<.01$), 책임성($r=-.316$, $p<.01$), 그리고 사회성($r=-.416$, $p<.01$)이 낮았다.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교성($r=-.234$, $p<.01$), 자제성($r=-.230$, $p<.01$), 그리고 사회성($r=-.250$, $p<.01$)이 낮았다.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사교성($r=-.295$, $p<.01$), 봉사성($r=-.116$, $p<.05$), 계획성($r=-.108$, $p<.05$), 책임성($r=-.218$, $p<.01$) 그리고 사회성($r=-.278$, $p<.01$)이 낮았다.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사교성($r=-.199$, $p<.01$), 협동성($r=-.171$, $p<.01$), 자제성($r=-.179$, $p<.01$) 그리고 사회성($r=-.165$, $p<.01$)이 낮았다.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사교성($r=-.533$, $p<.01$), 협동성($r=-.296$, $p<.01$), 봉사성($r=-.211$, $p<.01$), 책임성($r=-.148$, $p<.01$), 그리고 사회성($r=-.402$, $p<.01$)이 낮았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에서는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목표지향성과 자기주장,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학생의 성별비교에서는 기독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존재의식이 높았다.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수용과 자기존재의식이 높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독특성이 높다.

둘째, 기독교·비기독교 청소년의 사회성 비교에서는 기독교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보다 협동성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경우 기독교 학생보다 사교성, 봉사성, 그리고 계획성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으며, 비기독교 학생의 성별 사회성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책임성이 높다. 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책임성이 높고, 비기독교 학생의 학교급별 사회성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협동성이 높다.

셋째, 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은 사교성, 협동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그리고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비기독교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간의 관계에서는 사교성, 협동성, 봉사성, 자제성, 계획성, 책임성, 사회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기독교 종교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는 영향을 주고 있으나 사회성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교 4개교·고등학교 4개교, 제주도내 7개 교

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독교 비기독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신앙생활 유무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활동 유무 등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생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식 검사법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측정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지능력의 발달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주위 환경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형성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기독교 교육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지도하며 더불어 의식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4). 발달심리학. 정훈출판사.
- 권두승, 조아미(1998). 청소년 세계의 이해. 문음사.
- 권영신(1999). 기독교 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신앙고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이중(1996).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권이중, 권병진(1999). 청소년 유해환경이론. 교육과학사.
- 권중돈(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 김문조(994). 한국10대 청소년 의식구조. 삼성복지재단.
- 김상원(2000). 기독교 신앙이 자아개념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성국(1997). 조직과 인간행동. 명경사.
- 김성중(199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실현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숙경(1989).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김연진(1993).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정도에 따른 이타성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대(1998).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환(1996). 기독교 신앙 유무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경(1990). 교회 청소년을 위한 성서 학습지도.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

대학 대학원

- 김정수(1993).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적응력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련, 장휘숙(1996). **발달심리학**. 박영사.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경(2004). **기독교·비기독교 고교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용린(1992).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연구원(편).
- 박경수(1993). **청소년 단체활동과 사회성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승구(1997). **신앙발달의 개념분석을 통한 성숙이론의 연구**. 대학원.
- 박아청(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5). **성격심리학**.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중앙적성출판사.
- 박연숙(1989).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재현(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변세권(2001).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 서봉연(1995).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손성욱(2000).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해곤(199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 및 정체감 위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종두(1981). **청소년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 심재성(1995). **바람직한 청소년상**. 백신출판사.
- 양춘의(1986). **사회학 개론**. 진성사.
- 유선애(2000).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영(2001). **기독교청소년의 종교성이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은희(1978). **기독교 아동과 비기독교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춘재(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임옥진(2001). **자아정체감이 혼미한 기독교청소년상담에 있어 목회상담과 인간중심상담의 통합가능성**.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호(1998). **외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양임(1994). **가정환경과 청소년 자아정체감 형성간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옥채(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 최정훈(1982).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 최현아(1998). **기독교신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 한규석(1997).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현희순(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 Y : Holt Rinehart and Wintson, Inc.

-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 Y. : Wiley & Sons.
- Bronson, G. W. (1959). Identity Diffusion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p. 414-417.
- Crabb, L. J.(1976).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Michigan : Zondervan Publishing House.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The Academy. Pross
- Eric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Jhon Wiley, 159-189.
- Margaret. A.L. *Adolescenc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5.
- Rasmussen, J. E. (1964). The relationship of ego identity to psychosocial e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 15, 815-825.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ABSTRACT>

**A Study on the Ego-Identity and Sociability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Adolescents**

Choi, Chang-hwa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l-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re were any gap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adolescents in ego-identity and sociabilit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1. What differences are there in ego-identity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teenagers?
2. What differences are there in sociability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teenagers?
2. What is the relationship of ego-identity to sociabilit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00 selected students who attended four boys' and girls' high schools and four middle schools and belonged to seven churches in Jeju-do. After their ego-identity and sociability were tested, the responses from 720 students were analyzed.

1)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The instrument used to track their ego-identity was Seo Bong-yeon (1975)'s adapted version of Dignan(1965)'s Ego-Identity Scale, and the other was Park Gyeong-su(1993)'s Sociability Inventory that modified the sociability segment of the Central Education Evaluation Committee (1987)'s Emotional Characteristics Inventory.

As for ego-identity, eight subareas were assessed, including security, target orientation, uniqueness,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s, self-acceptance, self-assertion, sense of self and human relations. Eight items each were allocated to the subareas, and overall, 64 items were included in the scale.

The sociability was tested in six subareas to which five items each were given, including social skills, cooperativeness, spirits of service, self-control, planning and responsibility. Overall, 30 items were assigned to this facto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atistical data on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obtained, and t-test and one-way ANOVA were employed to evaluate their ego-identity and sociability. The instruments turned out to be reliable, as the Cronbach's α of the ego-identity scale was 0.73 and that of the sociability inventory was 0.7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below:

First, concerning ego-identity, the Christian students outdid the non-Christians in target orientation, self-assertion and ego-identity. By gender, the Christian girls were more secure than the Christian boys, and the non-Christian boys excelled the non-Christian girls in sense of self. By school grade, the middle school Christians were better than the high school

Christians at self-acceptance, sense of self and ego-identity, and the non-Christia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perior to the non-Christian high school students in self-acceptance and sense of self, and the latter was more unique than the former.

Second, as to sociability, the Christians were more cooperative than the non-Christians, and the latter excelled the former in social skills, spirit of service and planning. By gender, there was no gap between the Christian boys and Christian girls, and the non-Christian boys were more responsible than the non-Christian girls. By school grade, the middle school Christians had a better sense of responsibility than the high school Christians, and in the event of the non-Christians,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cooperative than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ego-identity to sociability among the Christians, their ego-ident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ir social skills, cooperativeness, self-control, planning, responsibility and sociability. In the case of the non-Christians, their ego-ident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to their social skills, cooperativeness, spirit of service, self-control, planning, responsibility and sociability.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Christian activities had an impact on developing the positive ego-identity of the adolescents, but that their sociability wasn't affected a lot by the religious activities. Accordingly, Christianity should educate teenagers to improve their sociability.

부 록

<부록 1> 설 문 지	48
<부록 2> 자아정체감 검사지.....	49
<부록 3> 사회성 검사지	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신앙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사회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논문의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 질문지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조사연구에만 적용되어 비밀이 보장되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최창환

아래 문항을 읽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 주십시오.

1. 나는 (고등 · 중) 학생이다.
2. 나는 (남자 · 여자)이다.
3. 나의 종교는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기 타 · 무교)이다.

<부록 2>

자아정체감 검사지

아래의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장래의 나는 현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				
3	나는 남들이 아무개의 “동생” 혹은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4	나에게는 남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5	나는 지금이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다.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7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 자신을 잃는다,				
8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9	나의 장래 일에 대한 결정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10	나는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아주 비슷하다고 믿는다.				
11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의식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한다.				
12	나는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13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저 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14	나는 때때로 전혀 나답지 않은 일들을 한다.				
15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군중 속에 파묻혀 안정되는 것이 편하다.				
16	나는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없다.				
17	나는 형님(언니)을 좋아하지만 형님과 꼭 같아지고 싶지는 않다.				
18	내 친구와 가족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잘 모른다.				
19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20	반대를 무릅쓰고 싸우는 것보다 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21	우스꽝스러운 작은 일로서도 나는 그만 딱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22	저녁시간을 혼자 보내야 할 때는 나는 대개 일찍 잔다.				
23	나에게 대한 지난 날의 추억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24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25	나는 대개 선생님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26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27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8	때때로 나는 나에게조차도 생소하게 여겨진다.				
29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30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같지 않다.				
31	나의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32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33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34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35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안다.				
36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자신 있게 내 자신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37	사람들은 나를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게 된다.				
38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39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				
40	우리 부모는 나를 어린애로 취급한다.				
41	내가 찬성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갈 수 없다				
42	지난 몇 주일 동안은 내 자신이 아니었던 것같이 느껴진다.				
43	나는 대부분의 남자(여자)친구들과 쉽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진다.				
44	나는 처음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쓴다.				
45	전공을 열린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46	남들은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47	내가 남자(여자)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8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49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도 내가 신비한 존재로 생각된다.				
50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51	내 인생관은 언제나 동일하다.				
52	나는 가끔 어느 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				
53	이만큼 성장한 이상 이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54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게 알아 차린다.				
55	남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는 않는다.				
56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57	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전만큼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58	나는 나날이 달라져 간다.				
59	나는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한다.				
60	사람들은 가끔 나와 친한 친구를 서로 혼동한다.				
61	나는 언제나 학생으로서의 나를 생각한다.				
62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63	남들이 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나의 강한 소신 때문이다				
64	이따금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부록 3>

사회성 검사지

아래의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아주 그렇다	그 렇 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
1	여러 사람들과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2	별로 선생님이나 친구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3	자기 일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이 요구하면 잘 도와준다				
4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				
5	안면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긴장된다.				
6	비교적 주위환경이 시끄러워도 공부하는 편이다.				
7	내가 스스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별로 없다				
8	일 할 때는 계획성 없이 덤빈다				
9	손윗 사람과도 사양하지 않고 의논하는 경우가 있다				
10	여러 사람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				
11	자기의 차례를 참고 잘 견딘다.				
12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수가 있다.				
13	좋은 물건이 있으면 친구에게 잘 나누어준다				
14	무엇이든지 이치를 따지려고 한다.				
15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럼을 느낀다.				
16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잘 상한다.				
17	여러 명이 하는 경기를 좋아한다.				
18	남을 도우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무릅쓴다.				
19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				
20	언제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21	약속을 어긴 일이 한번도 없다.				
22	말은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한다.				
23	주의를 주어도 기다리는 시간에 조용히 하지 않는다				
24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한다.				
25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				
26	다른 아이들과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27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28	나는 여럿이 공부하는 것보다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좋다				
29	상대방이 나의 의사와 일치되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낸다				
30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